

 금융위원회	<b>보도해명자료</b>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담 당 자	황 기 정 사무관(2832)	

**제 목 :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은 검토되고  
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**

**[파이낸셜뉴스 4.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]**

**1. 기사내용**

- 파이낸셜뉴스는 4월 6일자 조간 「자영업 자금난 특단대책 ... LTV도  
손댄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 - “정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(LTV) 완화를  
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”
  - “정책당국은 최근 현재 연간 1억원 한도로 허용된 생활안정  
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 
파악됐다”라고 보도

**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**

-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완화하거나,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  
담보대출의 연간 취급한도(1억원)를 확대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  
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송지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<b>NOW</b>
--	---	--	---	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